

“불교정신을 문학작품으로”

조계종, 불교문학 1억3천만원 현상공모

소설·시·시나리오·평론·동화 등 7개 장르

'96 문학의 해를 맞아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불교문학 현상공모가 실시된다. 문학의 해를 맞아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불교문학 현상공모가 실시된다. 문학의 해를 맞아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불교문학 현상공모가 실시된다.

으로 승화시켜온 불교문학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이번 현상공모는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윌주)이 주최하고 불교문학현상공모위원회(위원장 고은)가 주관한다.

△소설 △시 △시조 △희곡 △시나리오 △동화 △평론 등 총 7개 부문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공모의 응모자격은 기성작가와 신인 등 대상에 구별이 없으며 불교 관련 소재 작품이나 불교사상 또는 불교정신이 투영된 문학작품으로 신작에 한해 응모할 수 있다.

시상은 장편소설 5천만원, 중·단편소설 1천5백만원, 희곡·시나리오·평론 각 1천5백만원, 시·시조·동화 당선작이 각 7백만원이며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으로 하며 가작 상금은 당선작의 절반이 된다.

당선작에 대해서는 교계 및 일간신문 연재 또는 게재와 책자 간행이 예정돼 있고 TV드라마 및 영화제작도 추진한다. 심사발표는 오는 11월30일로, 불교신문에 게재하며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문의 및 접수는 총무원 문화사(02)737-9684, 한편 조계종은 12월에 있을 시상식을 기념해 시낭송회, 불교문학작품집 및 불교인 사진전시, 신라 이후 우리나라 불교문학목표집 발간 등의 행사도 아울러 갖는다.

이경숙 기자

교계 문학상 현황

일분법왕·현대불교·성파시조·동쪽나라 등 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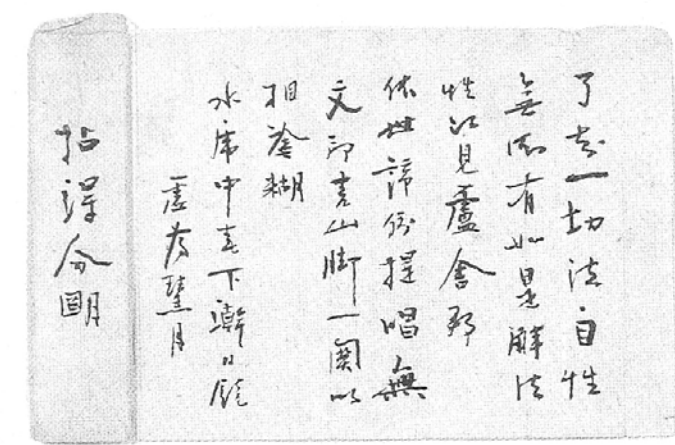
교계는 그동안 녹원스님이 제정한 '녹원문학상' 일간 <불교사상>지가 제정한 '만해문학상' 주간 <불교문학>의 '불교문학상' 등이 명멸을 거듭하며 불교문학 활성화의 불을 일구어 왔으나 지금은 폐지된 상태. 조계종의 불교문학 현상공모전 발표를 계기로 그밖에 교계의 문학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현대불교문학상: 현대불교문화회 주관, 등단 10년 이상의 역량있는 작가대상. 시·소설·평론 등 3

개부문 각 2백만원. 5월 시상. (02)308-9520
 ■일분법왕문학상: 일분법문화회 주관, 공모상(시조·수필·소설) 분상(소설) 특별상(민속·사건). 3월말 시상. (02)395-6655
 ■성파시조문학상: 부산시조문학회 주관, 영남일원 등단 10년 이상의 시조시인이 대상. 10월말 시상. 2인 각 150만원. (051)204-4441
 ■동쪽나라이동문학상: <동쪽나라> 주관, 역량있는 신예 아동문학가 발굴. 동시 단편 장편동화 부문 총 1천만원 고료. 1월 초 시상. (02)263-8438

문·화·화·제

만해 한운스님의 대표작 <님의 침묵>이 지난 1926년 초판 단행본 출간 이후 지금까지 나온 판본이 1백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님의 침묵> 판본을 수집 소장하고 있는 전보삼교수(만해사상연구소장)에 의하면 <님의 침묵>은 지난 1926년 5월20일 회동서관에서 단행본으로 최초 발간된 이후 한성도서주식회사 정음사 민중사 일광각 서문당 등 국내 유수의 각 출판사들에 의해 현재까지 꾸준히 발간되어 오고 있으며 이들 판본 중에는 하와이주립



◇근세 불교의 흥조 경허스님이 해월스님에게 준 전법계.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다.

근세 47선사 선서화 '한눈에'

불일미술관 개관기념 '근세고승유묵전'

경허 만공 함암 응성 만해 한영 학명 통산 효봉 경봉 청담 전강 탄허 구산 항봉 운허 자운 향국 성철 교암스님... 한국 불교의 선종을 진작시키며 한국불교사의 맥을 이뤘은 기라성같은 대선사들이 다시 불자들 앞에 나타났다. 법륜사(회주 현호) 불일미술관은 격동기를 살려 한국불교의 흥조를 일군 47선사들의 선서화 목적을 모은 '근세고승유묵전'을 3월6일부터 개최하고 있다.

교계 유일의 전문미술관으로서 개관기념으로 여는 첫 기획전인 이번 근세고승유묵전에는 선사들의 계승, 경구, 사군자, 선시, 범서 등 다양한 목작들이 선보이고 있다. 근세 선불교의 흥조인 경허스님(1849~1912)이 제자인 해월스님(1861~1937)에게 법을 전해준 전법계와 구한말 개화운동가 동인스님의 서간문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귀중한 자료. 경허스님의 전법계는 지난 1902년 통재 법어에서 해월스님에게 준 것으로서 조계종 종조인 태고 보우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법맥상속 친필도 같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경허스님 전법계·법맥상속 친필 공개 서간문 주류... 선승들 가풍 '볼 기회'

대한 서간문 친필이 다수 공개되고 있어 휘호와는 다른 진솔한 멋을 풍겨주고 있다. 일반 서예가나 화가의 글씨·그림과 달리 수행을 오래한 선사들의 필묵·선화는 탁속한 마음의 극치를 쏟아내는 발묵법(發墨法)을 통해 무궁한 내면의 세계

를 표출하는 '선서화'로서 '무언설법(無言說法)' '우주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법기(法器)'로까지 평가되고 있다. 무기무격(無技無格)한 용필과 농담, 갈필 속에서 선사들의 선지(禪智)와 도정(道程)을 살필 수 있다. 그러므로 근세고승유묵전을 통해 큰스님들의 수행력과 자화상을 보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 교계에는 그동안 크고작은 선서화전이 많이 열렸지만 이처럼

많은 큰스님들의 유묵을 한 자리에 모아 전시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송광사 통도사 수덕사의 성보박물관과 통도사 극락선원 등에 보존되어 있는 서화들을 옮겨왔다. 이 전시는 오는 4월2일까지 열린다. (02)733-5590 <속>

만해스님 '님의 침묵' 판본 1백종 넘어

대 출판부에서 나온 영문판 등 영문본 3종과 최근 프랑스 마르세유 오뜨루방출판사에서 나온 불어판이 들어갔다. 한 인물의 한 시집이 하나의 제목으로 판본을 거듭하기는 <님의 침묵>이 전무후무한 일로 이는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이 시대와 계층을 초월해 민족정신과 문학의 간간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문학계는 평가하고 있다. 전보삼교수는 "발간 70주년이 되는 5월 20일을 전후해 지난해 책방 '여시아문'에서의 전시에 이어 또 한번의 판본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소식

신춘 불교음악 발표회

조계종 총무원이 주관하는 신춘불교음악 발표회를 위해 연합합창단이 지난달 26일부터 연습에 들어갔다. 음악발표회날인 오는 17일까지 매주 월·목요일에 실시되는 이번 연습에는 서울 경기 사찰 합창단 40여명에서 350여명이 선발 참여하고 있다. 3월17일 음악제는 '경사로드' (최영철 작사 작곡) '지계의 노래' (대행스님 작사 작곡) '우리의 부처님날이' (백성복 작사 이달철 작곡) 등 합창곡 6곡 중창곡 11곡 등 총 17곡이 불리워진다.

1회 익산불교음악제

이리불교대학 가톨릭가톨릭단이 주최하는 제1회 익산불교음악제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이리시민회관에서 열린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리는 이번 음악제는 찬불가 합창·중창과 지법스님 명곡관 한영속씨 등 불자가수들이 초청 공연하며 다함께 부르기 공연 마지막을 장식한다.

13일까지 오수례씨 개인전

불자화가 오수례씨의 개인전이 오는 13일까지 해남갤러리(인천시 북구 부평3동, 515-7985)에서 열린다. 젊은 수채화법으로 채색한 한지 위에 나무를 재료로 내면의 형상을 오묘재현 오수례씨의 작품 소재는 수도암, 풍곡사, 종가집 등 전통문화에서 얻고 있으며 이것들을 오늘의 감각으로 재구성했다.

정신대할머니 그림전

정신대할머니들의 평생의 한과 설움을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빛을 향해 서리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앙병원 1층 로비에서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 미술전에는 강덕경(67) 김순덕(75) 이용미(70) 등 정신대할머니들이 '백일근순정' '뒀다핀 꽃'의 제목으로, 갈고 닦은 작품 31점을 전시하고 있다.

고려화엄변상집 50% 할인

민중사(사장 유재승)는 부처님게서 설하신 화엄경 80권의 내용을 80장의 변상도에 담은 <고려화엄변상집>을 정가(58만원)의 50% 할인 판매했다. 화엄변상도는 오로지 우리나라에만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판본은 현재 국보로 지정돼 해인사 대장경각에 보관돼 있다. (02)732-2403~4

공연기금마련 연등판매

불교극단 바람(대표 현장)은 부처님오신날 기념 '경허대선사 일대기'를 공연하기 위한 기금마련 연등 판매를 하고 있다. 지난 90년 창단된 '바람'은 그동안 '비구여 비구여' '사문의 모' '선재동자' 이등극 '순오공' 등 꾸준히 무대의 막을 열러왔으나 전반적인 불교연극의 침체속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장스님은 "공대무변하고 대자대비한 불교의 세계를 연극으로 표현함으로써 생활속의 입체적이고 능동적인 포교를 하고 싶다"며 "연등판매 수익금 일부가 '경허대선사 일대기' 공연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 말했다. 극단 바람 연등사업부 (02)737-0885. <기사보여 '불심사실' 습니다.>

공 고

오는 4.11 총선은 지방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민주정치 발전의 분수령으로 범국민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권위주의적 질서와 제도 속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부정 타락 선거 풍토는 새로운 통합 선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며 정치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래 시작된 우리의 불법 타락선거의 병폐는 선거 망국론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하게 유권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한국 불교종단협의회에서는 민주 발전에 분수령이 되는 금번 제 15대 총선을 깨끗하게 치위 전진한 선거문화풍토를 정착시킴으로써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산하에 공명선거제도위원회를 설치하고 28개 회원 종단과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명선거 제도 활동을 실시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활동지표
 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구현
 나.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 선거문화 개혁
 다. 정책 및 인물 중심의 선거풍토 정착
 라. 적법한 홍보 및 공정한 선거 관리 실현

2. 부정선거의 유형
 가. 금품살포, 향응제공, 선심 관망
 나. 후보자간 흑색비방선전, 인신공격
 다. 동문회, 향우회, 종친회 등 연고 집단의 선거 개입
 라. 후보자의 불법(편법)홍보
 마. 선거 비용 과다 사용
 바. 언론 매체의 편향 보도
 사. 기타 선거법 위반 등

3. 활동기간: 1996. 2. 10 ~ 4. 10 (2개월간)

4. 활동내용
 가. 각종 범회를 통한 계몽활동
 사찰 또는 신행 단체별로 각종 범회를 통하여 공명선거의 중요성과 부정선거에 동참하지 않기 결의 등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나. 공명선거 홍보 및 선전활동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위하여 안내 전단, 스티커, 프랑

카드 등을 제작하여 사찰 및 신행 단체 그리고 일반 불자들에게 배포한다.
 다. 입후보자 불법 선거 감시 활동
 각 사찰 신도회 또는 신행단체의 임직원과 청년 불자들을 감시요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전개한다.
 라. 부정선거 신고 센터 운영
 종단협의회 사무실 내에 부정선거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선거 부정에 대한 불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마. 각종 모니터 활동
 각 종단별로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여 후보자(경력, 정책, 선거 운동) 및 각종 언론 매체의 보도 상황 등을 모니터한다.

■참고: 전국의 불자 여러분은 해당 지역의 부정선거 사례를 공명선거 제도 위원회 신고 센터(전화732-2612)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신고전화:(02)732-2611, 732-2612, 732-2613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공명선거 제도위원장 김월서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